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8. 1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가짜 뉴스發 폭력시위로 규제·교육 강화
 - 8.12 언론은 英 정부가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SNS 업체를 규제하는 법을 개정*하고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상 허위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추가예정이라고 보도
 - * 英의 기존 온라인안전법은 의도적인 거짓 정보나 잠재적인 대상에게 신체적·정신적 해를 미칠 의도가 있는 불법 허위 정보를 규제
- 獨, 언론사 가짜 홈페이지 뉴스 유포 정황 포착
 - 8.13 언론은 러시아 IT업체가 독일 언론사와 똑같은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허위정보를 유포한 정황을 확인했으며, 해당 뉴스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한 내용이나 허위 테러사실 유포 등이 있었다고 보도

미주

- 美, 「트럼프」 암살 사주 40대 파키스탄인 기소
 - 8.7 美 법무부가 「트럼프」 前 대통령을 포함한 전·현직 미국 관리들에 대한 암살을 사주한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 「아시프 메르찬트」를 기소, 언론은 배후에 이란 정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다만, 지난달 13일 트럼프 前 대통령을 겨냥해 방아쇠를 당긴 총격범 「매슈 크록스」와의 접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언
- 美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빈 공연, 테러 위협으로 취소
 - 8.7 언론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빈 콘서트 공연장에 테러를 모의한 ISIS 소속 테러범 2명을 체포하였으며, 공연 주최 측은 8~10일 예정된 콘서트 3건을 안전을 위해 취소하였다고 보도

중 동

- 시리아, 검문소에서 차량 폭탄테러로 10명 사망
 - 8.8 언론은 튀르키예와 인접한 시리아 북부의 아자즈市の 검문소에서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으며, 공격의 배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아자즈市가 현재 親 튀르키예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까지 튀르키예 정부가 테러단체 소탕작전을 지속해온 곳이라고 부언
- 9.11 테러,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개입 정황 공개
 - 8.10 언론은 9.11 테러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'비행기 스케치'와 '美 의사당 영상' 등의 증거를 영국 경찰이 사우디 정보국 비공식 요원의 자택에서 압수하였다고 보도
 - ※ 1999년에 촬영한 영상에는 9.11테러범이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는 의사당의 입구, 출구, 주차시설, 경비원 등의 모습이 담겨 있음

아 · 태평양

- 韓 정부, 출국 권고로 이스라엘·레바논 교민 20여명 출국
 - 8.7 언론은 韓 정부의 강한 출국 권고로 이집트와 레바논 교민 20여명이 출국했으며,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 540명, 레바논과 이란에 각각 110명의 교민이 체류 중으로 확인했다고 보도
 - ※ 외교부에서는 6일부터 블루라인(UN 지정 이스라엘-레바논 국경지역) 인근지점인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과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에 추가로 여행금지를 추가로 발령
- 印尼, 자살 폭탄테러를 모의한 테러범 체포
 - 8.8 외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교회 두 곳을 표적으로 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자살폭탄테러 계획을 저지하였으며, 체포된 조직원은 트라이아세톤 트라이퍼옥사이드(TATP)* 폭발물을 사용 예정이었다고 보도
 - * TATP : '악마의 어머니'라고 불리며 폭발물 중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것으로 꼽힘

관광객 겨냥 태국 연쇄폭탄테러 사건

○ '16.8.11~12 태국 주요 관광지 푸켓·후아힌 등 7개 지역에서 13건의 폭탄테러가 연쇄적으로 발생, 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

* 군부 주도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後 일주일이 지난 태국 국경일인 'Queen's Day'(8.12)에 발생



< 사건 발생지역 >

- 同 지역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 휴양지로,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고 태국의 관광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 효과적

○ 태국 정부는 범행 수범 등으로 보아 태국 남부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슬람 분리주의 반군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

※ 나라티왓, 알라, 빠따니 남부 3개 州와 송클라州 일부 지역은 무슬림 소수 민족인 말레이족이 대다수이며 '딥 사우스'(Deep South)라고도 불림

- 과거 반군 무장세력에서 사용한 소형 사제폭탄과 유사한 폭탄이 사용되었으며, 수거된 불발탄에서 同 단체 인물의 DNA도 검출

⇒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다수의 국민이 휴양지를 방문하고 있는 만큼, 각국의 테러 정세 파악 등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

<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(AQAP) >

- (영문 / 별칭) Al-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 / 예멘 알카에다
- (결성/목표) '09.1 '예멘 알카에다'가 '사우디 알카에다'와 통합하여 아라비아반도와 중동內에서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), 미국('10.1), 캐나다('10.12), 호주('10.11), 사우디('13.12), UAE('15.11)
- (활동지역 / 연계세력) 예멘, 사우디아라비아 / 알카에다, 알샤바브
- (수법) 예멘 軍·警 대상 공격 및 다양한 형태의 폭발물(프린터, 속옷, 신체內 은닉 등)을 이용한 주요 인사 암살, 항공기 폭탄테러 등
 - ※ '19.12 미국 플로리다州 해군 항공기지 총기 테러(사망 3명, 부상 8명) 배후 자처
- (특징) 반서방 글로벌 테러에 가장 적극적·공세적이며, 알카에다 지부 조직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단체로 평가